

'차 한잔' 보시로 군장병 위로

연천 '향지모임' 군법당 지원...차·향·초 수집

‘군부대에 차 한 초를 보냅니다.’ 연천 향지모임(회장 양준연)은 군부대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차한잔나누기’ 캠페인과 군법당 지원운동을 1년동안 펼친다.

경기도지역 군부대 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온 향지모임은 20일 회의를 갖고 ‘차한잔나누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빵제조까지 갖춰 조직과 재력으로 군부대를 전도하고 있는 기독교에 비해 교계의 포교현실은 초보적이라고 판단. 이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 참석자는 밝혔다.

이와함께 일반사회에서 쓰고 남은 향 초를 군법당에 보내고 일반신도단체에서 쌀 떡등 위문물품을 보시토록하는 군법당 지원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향지모임 총무 박미영보살은 “향 한조각을 먹기위해 어배당으로 향하는 사병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

프다”며 “따뜻한 차한잔의 보시로 군장병들에게 불연의 씨가 싹들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부대에 보내는 차는 늦은밤 근무장병들에게 나눠주고 향 초는 군법당에 쓰인다.

군불교포교를 위한 ‘차한잔나누기’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사찰이나 불자는 연천 향지모임(0335-832-0719, 832-26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향지모임은 경기도 최북단 연천지역에 거주하는 40여명 불자들의 모임으로 화비전역과 수산물관매, 일일차집 등으로 모은 기금을 군법당에 지원하고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매주 1회 1개 사단법당을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위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wwwkim@buddhapia.com)



보성스님 부산교사불자회서 법문

부산교사불자회(회장 양원식)는 19일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1백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보성스님(승공사 방장) 제1회 큰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보성스님은 법에서 “한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고사는 자신이 바르도록 해야 한다”며 마음수행을 통한 정진을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불교언론인회 사업심의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2월 11일 오후 6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99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한다.

이날 운영위원회의는 △98년 주요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결산 △99년 예산과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논의한다.

우리 모임에선

연 캠프, 방학시 교사교양대학 개설, 연2회 불교강좌 및 회지발간, 청소년 유해감시단 개설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석불문화원 사랑방모임

한국석불문화연구원(회장 이근후)는 2월 10일 오후6시 삼정동 가족아카데미에서 2월 사랑방모임을 갖는다.

이번 사랑방모임에는 배연파회원이 ‘전각의 불상배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02)760-5138

제주 불교회장 임기현씨

제주불교회장은 99년 사업계획으로 정기법회 개최, 불자교사연수회, 불교학술회의연수 및 우리문화 자랑운동 실시, 하계청소년

부산·경주 운불

호출택시 운행

운전불자회 호출택시제도가 연이어 시행되고 있다.

부산불교운전자사회가 2월 1일부터 공식개통하고, 경주운전자불자회는 새해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부산불교운전자사회(회장 백봉도)는 17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4백여명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법회를 갖고 호출택시인 자비콜(051-622-8282)을 2월1일부터 공식 운영키로 하고 시험가동 중이다.

이날법회에서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회봉사와 불교포교에 이바지하는 운전불자회가 돼달라”며 “정법을 따르는 불자들은 가정의 화목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경주불교운전자사회(회장 안중대)도 1일부터 호출택시(0561-741-8282)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임기회회장은

“하루차집운영과 빚잔치 참여 등 수익사업을 통해 회원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하고 “6월경 전국운불대회를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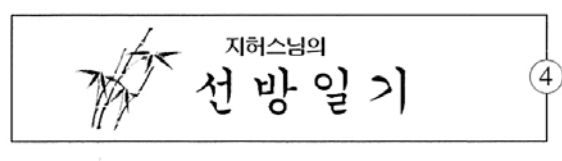
한편 임기현씨는 부회장 조주훈, 감사 이춘선, 기획실장 박대운, 총무부장 이성중, 통원부장 권영제, 홍보부장 김수호, 의전부장 원동필씨가 선임됐다.

보현가족 신병 위문법회

고양시 재가불자 봉사단체인 보현가족(회장 이일심)은 31일 제9보현가족 신병교육대 늘푸른 법당에서 신병들과 함께 1월 정기 위문법회를 가진다.

보현가족은 올해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내 독거노인 돕기 봉사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0344)966-1101

시비 금기이나 그칠새 없으니...



■10월30일 식탁·세탁

그믐이다. 삭발하고 목욕하고 세탁하는 날이다. 보름과 그믐에는 불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날이기에 세탁을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내복을 입어야 하고 내복에는 이따위가 있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살생을 하는 결과가 된다.

날카롭게 번쩍이는 삭도가 두개골을 중황으로 누비는 것을 바라볼 때는 섬뜩하기도 하지만 내 머리카락이 쓱쓱 밀려나갈 때는 시원하고爽快하다. 바라보는 것과 느끼는 것의 차이 때문이다.

겨울철 목욕탕과 세탁장 시설이 협소하니 노스님들에게 양보하고 젊은 스님들은 개울로 나가 얼음을 깨고 세탁을 하고 목욕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손질하는 것으로 끝낸다. 오후에는 유나(維那)스님의 포살이 행해진다.

삼장(경 율 론)중에서 율장을 다룬다. <사분율의>에 의해 사미 10계, 비구 250계가 나열되고 설명된다.

선은 원칙적으로 교외(別傳) 교설(別傳)에 따라 전함.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 곧바로 자신의 마음을 통해 자기의 본성을 보아 깨달음, 혹은 불립문자견성성불(不立文字 見性成佛) 문자를 세우지 않고 자기의 본성을 보아 깨달음(悟)을 의지하면서 자성의 오득(悟得)을 주장한다. 인위적인 일체의 잡다한 형식을 무시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심지어는 불경까지를 외면한 채 오직 화두에 의한 선리참구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선객은 괴벽하게 보이고 비장하게 느껴진다. 그런 선객들에게 계율을 말하고 보살행을 설파함은 도로(徒勞)일 뿐이라는 걸 유나스님은 잘 알면서도 노과심 때문에 행하고 있고 또 대중들은 듣고 있다. 중생의 모순성 때문인지 모순의 이율성(二律性) 때문인지.

몇몇 스님들은 포살에 참석하기는 하나 유나스님의 개구성(開口聲)을 마이동중경으로 처리하면서 자신의 화두에 정진하는가 하면 몇몇 스님들은 아예 밖으로 나가 보행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포살을 폐지하지는 혁신론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은 필연성과 당위성 그리고 우연성까지 결집된 역사성임에 틀림없으니 내가 견성하지 못하는 한 진부(眞否)나 가부가(可否)를 판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고 보자는 극히 보수적이면서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다.

불교의 제법종본래(諸法從本來) 때문일까. 실존철학의 존재는 존재를 존재시키기 위한

존재라는 것 때문일까. 중생세계에서 보면 필요성을 주장하면 이 유가 되고 타당성을 주장하면 독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방관자가 된 채 그대로 보고 느끼면서 오직 견성에 매달려 중생계를 탈피하려 한다. 자신이 중생에 머물러 있는 한 모든 판단의 척도가 중생심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



진다. 선방에서는 뒷방을 차지하는 시간에 의해 우세가 결정되기도 한다. 뒷방을 차지하는 시간이 많은 스님은 큰방을 차지하는 시간이 적고 큰방을 차지하는 시간이 적은 스님은 점차로 선객의 웃이 벗겨지게 마련이다.

상선사의 뒷방 조실은 화대(火臺)스님이 당당히 차지했다. 위계양과 10년을 벗고 해인사와 범어사에서 뒷방 조실을 차지했다. 경령의 소유자이고 보니 만장일치의 추대다.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불가에서는 사교까지 이수했고 절밥도 십년을 넘게 먹었고, 남쪽의 대소 선방을 두루 권력했으니 뒷방조실로서의 구비요건은 충분하다. 금상첨화격으로 달변에다 다칠질에다 쇼맨십까지 훌륭하다. 경성도 출신 이어서 그 독특한 방언이 구수하다. 낙동강 물이 마르면 말랐지 이 뒷방 조실스님의 화제가 고갈되지는 않았다. 때로는 파라독스하고 때로는 페이소스하다. 때로는 도인의 경계에서 노는 것 같고 때로는 마구니의 경계에서 노는 것 같다. 재불조사가 그의 입에서 사활을 거둬주는가 하면 현재 큰 스님이라고 추앙되는 대덕스님들의 서열을 뒤바꾸다가 때로는 감감한 방중이나 먹통으로 물이붙이기도 한다. 무불통지 무소부지인체 하면서 거들먹거리지 않는 그의 천성이 선량하고 희극적인 일굴모습과 배우적인 소질때문에 대중들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지만 추앙받지도 못했다. 천부적인 뒷방 조실감이라는 명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이 뒷방 조실이 가끔 치명적으로 자존심에 난도질을 당하고 뒷방 조실의 지위를 위협당하는 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원주스님 때문이다. 선방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원주스님은 대중들의 생활품 구입때문에 강릉 읍일이 잦았다.

젊은 스님들 개울 얼음 깨고 세탁·목욕 病氣있고 구변좋은 구참이 뒷방 조실

오니까. 그래서 불가에서는 시비는 터부로 여기지만 그러나 시비가 그칠 때가 없으니 역시 중생인이라 어쩔 수 없을 뿐이다.

■11월3일 지대방 생리

선방의 역사는 뒷방에서 이루어진다. 뒷방의 생리를 살펴보자. 큰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다랗게 놓인 방이 뒷방(혹은 지대방)이다. 일종의 휴게실이다. 개인 장구가 들어 있는 바깥이 선방 위에 줄줄이 담을 쌓고 있어서 누구나가 다녀다. 휴게시간이면 끼리끼리 모여앉아 법담을 주고 받기도 하고 잡담도 한다. 길게 드러누워 결구부좌에서 오는 허체의 피로를 풀기도 하고 요가도 한다. 간병실과 곁하고 있어 병기가 있으면 치료도 한다. 웃을 깨매는가 하면 불서를 보기도 한다.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일기도 쓴다.

어느 선방이거나 큰방 조실이 있을 때 동시에 뒷방 조실이 있다. 큰방 조실은 법력으로 결정되지만 뒷방 조실은 병기(病氣)와 구변(口辯)이 결정된다. 큰방에서 선방의 정사가 이루어진다면 뒷방에서는 아사가 이루어

강릉에 가면 주자가 포교당인데 포교당은 각 처의 여러 스님들이 들렀다가 가는 곳으로서 전국 사찰과 스님들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요즈음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보면 신문보다도 훨씬 빨리 그리고 자세히 알 수 있다.

원주스님도 꽤 달변이어서 며칠동안 들어 모은 뉴스를 갖고 돌아오면 뒷방은 뒷방 조실을 의면하고 원주스님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그때 뒷방의 모든 헤게모니를 빼앗기고 같이 경청하고 있는 뒷방 조실의 표정은 우거지상이어서 초라하다 못해 처량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뉴스가 한토막씩 끝날 때는 막간을 재빨리 이용하여 뉴스에 대한 논평을, 코믹한 사족을 붙이거나 독설을 질타하는 것으로 체면유지를 하다가 원주스님의 뉴스원이 고갈되자 마자 맹호출력의 기상으로 좌중을 석권하기 위해 독특한 제스처로 해독은 뉴스를 끄집어 내어 재평가를 하면서 일보통(뉴스통)의 권위자임을 재인식시키기에 급급하다. 면역이 된 대중 스님들은 맞장구 쳐도 있지만 피에로의 후신인 양 지절어낸다.

1999학년도 제8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 모집

통신 및 출강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법사(法師)란

*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며 불교 3부의 이상적 가치를 생활속에 구현하려고 마하연의 정법을 연구정법하는 대승의 보살로서 불교 종교인의 신앙의견과 법사법위 품수 의례의 과정을 거쳐 법사의 자격을 여법히 받은 대승행자인 불교지도자임을 말합니다.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법위품수와 소정의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 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법위품수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관 모집안내

1. 모집과정: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입학원서(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법사과정 = 1년 (불교 기본의식 포함), 대법사과정 = 2년 (불교 상용의식 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1999년 1월 5일~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대학 교무처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 110-1700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 Fax : (02) 737-5305

'99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972년 9월에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대중불교의 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불교전문교육의 요람으로서 2년제 야간 전문과정임. (27년간 38기 졸업·현재 39기생 모집중)

1.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 불교학과 통신과정
2. 지원자격: ○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 포교사 자격고시대비용 (교리 및 의식교육) 불자
3. 강의시간: 주4일 수업 (오후 7시부터 ~ 8시 30분까지) 4. 교육과목: 20개 과목 연간 총 28주 교육

학년	교 육 과 목
1 학년	1 학기: ○ 불교경전의 이해 ○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 초기불교의 이해
	2 학기: ○ 대승불교의 이해 ○ 중국불교의 이해 ○ 한국불교의 이해
2 학년	1 학기: ○ 불교문화의 이해 ○ 비교종교 ○ 부파불교 ○ 반야사상 ○ 유식사상
	2 학기: ○ 기신론 사상 ○ 천태사상 ○ 화엄사상 ○ 선사상 ○ 정토사상 ○ 불교교리 발달사

* 매학기 : 의식이론 및 실습교육 / 동·하계스쿨링교육(특강 및 의식실습 실시)
* 교수진 : 권기중교수(동국대) 강건기교수(전북대) 권탄준교수(동국대) 장희욱교수(동국대) 최중석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 김사범교수(동국대) 김중명교수(동국대) 김용기교수(동국대)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2월 28일 18:00까지(본대학 사무과)
6.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7.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8. 특전사항: ○ 소정의 법사교사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사무과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